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 + +
2001년 9월 2001년 9월

+ + +
+ + +
2001년 9월 2001년 9월

+ + +
2 2 2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 • • • •
9 9 9 9 9 9

V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1년 9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29
제3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39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51
<정책논단>	채권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61
<경제이슈>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전쟁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책	73

부록

경제정책정보	81
주요경제통계	85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이인실

연구위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

김주호

김창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2. 현 경제정책의 평가
3.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정책논단> 채권시장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이슈>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전쟁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책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실질GDP증가율 : 2/4분기중 2.7%증가, 1/4분기(3.7%)보다 증가세 둔화

- 2001년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신장세의 급감, 설비투자 감소세의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쳐 1/4분기(3.7%)보다 증가세가 둔화 (계절변동조정 실질GDP는 전분기대비 0.5% 증가)
 - 총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급감 : 1/4분기 8.4% → 2/4분기 1.2%
 - 설비투자 감소폭 확대 : 1/4분기 -7.9% → 2/4분기 -10.8%
- 국내총소득(GDI)은 수출품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0.5% 증가에 그침.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GDP) (계절조정)	10.9	12.6 (1.6)	9.7 (1.6)	9.2 (2.4)	4.6 (-0.4)	8.8	3.7 (0.3)	2.7 (0.5)
민간소비	11.0	10.8	8.9	5.7	3.2	7.1	0.9	2.9
정부소비	1.3	1.5	1.1	0.5	1.8	1.3	-2.3	-1.2
건설투자	-10.3	-6.8	-4.2	-3.5	-2.5	-4.1	1.4	0.9
설비투자	36.3	62.6	41.6	31.9	8.1	34.3	-7.9	-10.8
총수출	15.8	27.1	21.4	22.5	16.4	21.6	8.4	1.2
총수입	28.8	31.6	20.6	22.4	8.2	20.0	-0.7	-7.2
국내총소득(GDI)	8.9	4.6	2.4	3.2	-3.3	1.5	0.6	0.5

주 : 계절조정계열은 전분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산업생산 : 급격한 둔화 추세... 6~7월중에는 감소세

- 생산, 출하 등 생산활동지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6월 감소세로 전환된 산업생산이 7월중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
- 수출출하의 부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그나마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내수출하마저 7월중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출하가 2개월 연속 감소세

- 6월중 전월비 2.7%의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7월중(2.8%)에는 다시 증가
- 생산감소폭이 확대되면서 7월 평균가동률(71.0%)이 전월(74.1%)에 비해 크게 하락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생 산	16.8	23.6	18.4	19.8	7.6	5.0	1.6	-2.8	-5.9
· 중화학	20.4	27.3	22.6	24.3	10.0	6.9	2.0	-3.4	-6.6
· 경공업	3.3	10.5	4.0	3.6	-3.8	-4.7	-1.5	-2.3	-6.3
출 하	16.6	25.2	18.1	19.8	5.7	2.2	1.1	-0.9	-6.0
· 내 수	12.7	24.1	15.1	10.5	3.3	-3.0	2.6	3.0	-1.5
· 수 출	21.7	26.7	22.2	32.6	8.6	9.1	-1.0	-5.6	-11.2
재 고(원계열)	16.2	10.2	9.6	13.4	16.2	15.2	14.9	14.9	15.2
· 계절조정	16.2	1.7	0.8	5.3	7.4	1.0	0.6	-2.7	2.8
평균가동률(%)	78.3	79.4	78.8	79.9	75.0	74.7	74.5	74.1	71.0

주 : 재고는 기말기준이며 전월(분기)대비(%)

자료 : 통계청

실업률 :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중에는 소폭 증가

-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실업자와 실업률이 7월중에는 소폭 증가
- 실업자 : 76만명(6월대비 1만 5천명 증가)
- 실업률 : 3.4%(6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실업률도 전월대비 0.1%p 상승한 3.7%

<표 3>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실업자 (실업률)	982 (4.6)	1,069 (5.0)	1,035 (4.8)	848 (3.8)	780 (3.5)	745 (3.3)	760 (3.4)
· 계절조정실업률	4.1	4.2	4.2	3.8	3.6	3.6	3.7

소비 : 회복세 둔화

-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지표의 움직임도 7월 들어 둔화되는 모습
 - 도소매판매 증가율이 2/4분기 4.0%에서 7월중에는 2.5%으로 둔화
 - 6월중 13.7% 증가했던 내수용소비재 출하의 경우, 7월중에는 7.1%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도소매판매	9.8	15.1	13.3	8.0	3.9	2.5	4.4	4.5	2.5
· 도매	9.1	14.6	11.9	6.3	4.5	3.2	5.3	5.1	3.6
· 자동차, 연료	9.3	27.1	17.2	6.3	-7.7	-4.4	7.6	6.5	-3.3
· 소매	11.1	12.7	14.2	11.1	6.7	3.7	2.1	3.0	3.1
내수용소비재출하	6.4	17.7	13.5	-1.8	-1.7	-8.1	5.0	13.7	7.1
· 내구재	5.1	35.4	21.6	-16.9	-10.6	-19.4	8.3	39.4	24.0
· 비내구재	7.2	8.7	9.3	7.6	3.6	-0.8	2.9	1.6	-1.4

자료 : 통계청

투자 : 설비투자 감소세 확대, 건설투자 하락세로 반전

-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확대
 - 설비투자추계가 1/4분기중 6.2% 감소에 이어 2/4분기중에는 4.7% 감소했으며 7월중에는 10.3% 감소
 - 국내기계수주, 기계류수입액,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 등 대부분의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의 감소세 확대
- 건설기성액이 6월 이후 다시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관련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2월 이후 연속 4개월 증가세를 보여 회복세가 기대되었던 건설기성액이 6월에는 5.4% 감소한데 이어 7월에는 11.0% 감소
- 그러나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는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는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설비 및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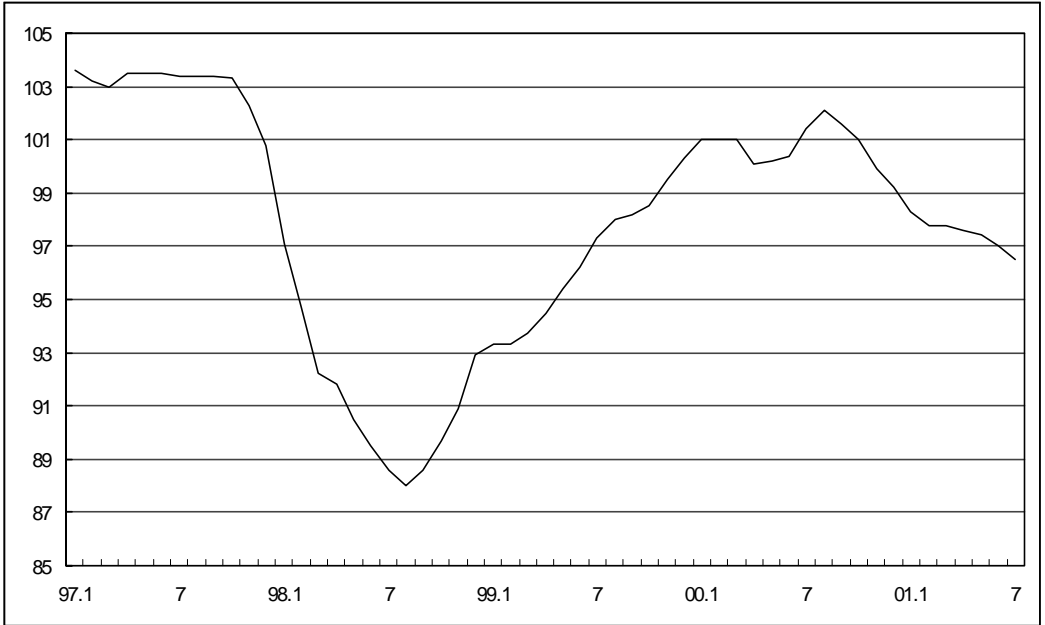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국내기계수주	11.7	15.6	8.0	7.0	17.3	3.7	-2.8	0.7	-11.8
기계류수입액	40.6	64.9	57.3	53.5	1.8	-1.2	-30.6	-25.5	-23.7
설비투자추계	30.1	59.3	34.8	29.5	5.7	-6.2	-4.7	-2.8	-10.3
설비용기계내수출하	37.5	65.0	43.9	39.1	12.6	-6.9	-7.5	-12.7	-13.8
국내건설수주	15.1	70.9	15.9	7.9	-7.0	-25.3	1.7	-8.3	11.9
건설기성	-3.1	-6.4	-2.4	-3.1	-1.2	1.6	-0.4	-5.4	-11.0
건축허가면적	11.8	90.6	35.6	33.4	-35.2	-14.0	22.5	51.0	22.6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 산업활동 부진을 반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지속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중에도 전월에 비해 0.5%p 낮아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그림 1>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감소세 확대

- 하반기 들어 수출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
- 3월중 감소세(-2.1%)로 반전된 수출이 2/4분기중에는 11.4% 감소한데 이어 7~8월 중에는 20.0% 감소

<표 6> 수출(통관기준) 추이

	2000년		2001년					
	1~8월	연간	1/4	2/4	6월	7월	8월	1~8월
금액(억달러)	1,119.2	1,772.8	401.0	384.7	130.2	114.9	119.2	1,019.8
증가율(전년동기비, %)	25.6	19.9	2.1	-11.4	-14.6	-20.5	-19.4	-8.9

자료 : 산업자원부

■ 품목별 수출동향

-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의 부진 현상 지속
- IT이외의 품목들도 대부분 감소세가 확대되거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

<표 7>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000년		2000년		2001년				
	금액	비중	7월	8월	1/4	2/4	7월	8월	1월~8월
반 도 체	212.8	<12.4>	25.6	31.7	-13.8	-41.4	-59.5	-62.0	-37.6
컴 퓨 터	192.5	<11.2>	142.8	136.8	-8.6	-32.5	-46.9	-35.0	-26.6
무 선 통 신	65.4	< 3.8>	35.1	15.4	10.5	19.3	18.8	44.0	18.8
승 용 차	111.0	< 6.4>	7.6	9.4	1.8	18.5	-3.7	2.0	7.2
선 박	82.3	< 4.8>	39.2	36.2	76.1	17.2	27.8	1.0	37.3
기 계 류	101.1	< 5.9>	31.9	34.0	19.6	-5.5	-16.3	-3.0*	2.2*
철 강·금 속	113.6	< 6.6>	9.9	-2.9	-3.2	-12.8	-10.1	-11.0	-8.8
화 공 품	121.4	< 7.0>	23.9	32.3	0.4	-11.5	-9.9	-15.0	-7.5
섬 유 류	176.7	<10.5>	1.2	12.5	-8.1	-13.6	-17.0	-17.9*	-12.5*

주 : *는 8.1~20일 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 수출동향

- 미국, 일본, 동남아에 대한 수출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상반기중 비교적 호조를 보이던 중국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도 큰 감소세로 반전

<표 8>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2000년		2000년		2001년				
	금액	<비중>	7월	8월	1/4	2/4	7월	8.1~20	1.1~8.20
미 국	376.1	<21.8>	31.5	37.8	-0.7	-16.1	-24.8	-21.5	-12.1
일 본	204.7	<11.9>	35.0	40.6	-1.1	-12.4	-23.2	-26.2	-10.4
E U	234.2	<13.6>	29.4	17.5	3.4	-16.3	-23.5	-10.2	-9.6
동남아	388.7	<22.6>	18.3	33.3	-9.5	-17.3	-25.1	-25.8	-16.0
중 국	184.5	<10.7>	38.4	55.5	10.3	2.9	-4.1	-10.7	3.4
중남미	93.7	< 5.4>	6.5	38.5	29.7	9.5	-21.3	-14.0	12.4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설비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수입증가율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1/4분기중 2.0% 감소한 수입은 2/4분기중에 13.4% 감소한 데 이어 7~8월중에는 17.0% 감소

<표 9> 수입(통관기준) 추이

	2000년		2001년					
	1~8월	연간	1/4	2/4	6월	7월	8월	1~8월
금액(억달러)	1,057.5	1,604.8	380.6	344.7	117.3	110.9	114.2	950.3
증가율(전년동기비, %)	43.0	34.0	-2.0	-13.4	-11.0	-18.9	-15.1	-10.1

자료 : 산업자원부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 소비재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 유지

<표 10>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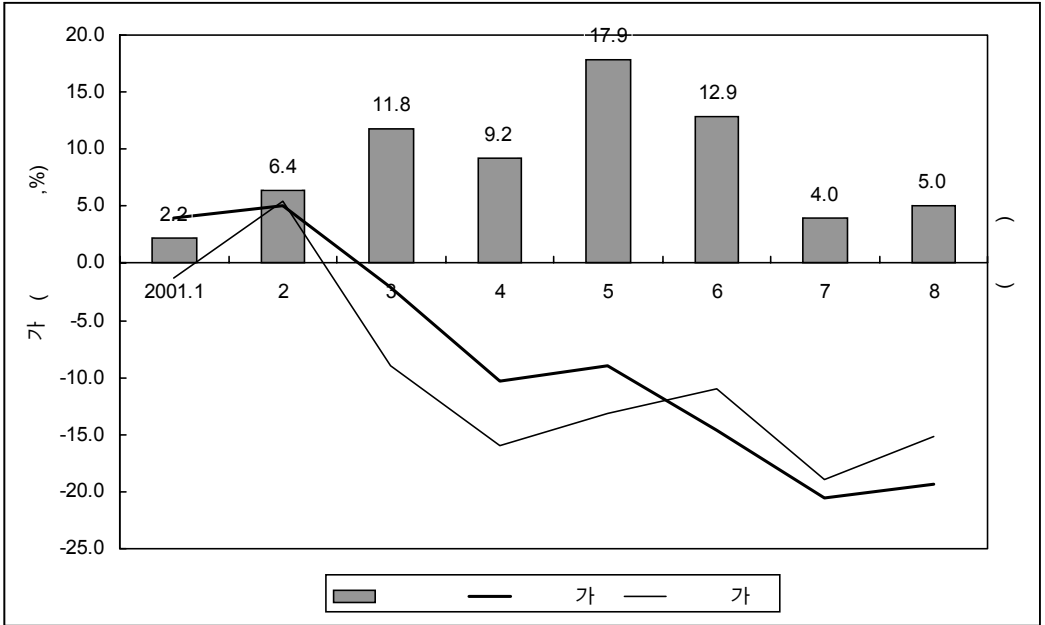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20	1.1~8.20
원자재	34.0	-3.5	12.9	-4.9	-12.0	-5.5	-4.0	-17.4	-4.4	-5.1
자본재	35.8	0.3	-3.8	-17.3	-25.6	-26.8	-22.7	-26.3	-26.3	-18.7
소비재	26.7	5.0	3.1	8.2	4.5	5.9	1.9	5.0	3.1	4.7

자료 : 산업자원부

무역수지 :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6월 이후 수입 감소세보다 수출 감소세가 더욱 커지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

<그림 2> 수출입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국제수지 : 7월중 경상수지 흑자 폭 연중 최저, 자본수지는 흑자로 반전

- 7월중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폭이 연중 최저인 5.1억달러에 그침
- 7월중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자금의 순수출(4.2억달러), IMF지원자금 조기상환(6.0억달러)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의 대규모 해외 DR발행(22.1억달러) 등으로 8.3억달러 흑자 시현

<표 11>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단위 : 억달러

	2000년				2001년			
	연간	1~7월	3/4	4/4	1/4	2/4	7월	1~7월
경상수지	110.4	51.1	36.5	33.2	30.7	37.3	5.1	73.2
상품수지	166.0	83.0	54.1	41.6	34.6	51.5	9.3	95.4
서비스수지	-39.7	-20.0	-12.2	-10.2	-5.5	-7.8	-5.1	-18.5
소득수지	-22.0	-17.1	-6.2	1.0	0.5	-5.4	1.2	-3.7
경상이전수지	6.2	5.2	0.8	0.8	1.1	-1.0	-0.2	-0.1
자본수지	117.3	145.3	4.7	-24.2	-37.1	-36.5	8.3	-65.3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물가 : 5월 이후 증가세 둔화

- 4월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물가가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임.
- 2/4분기중 5%대의 증가율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5월을 고비로 점차 낮아져 8월에는 4%대로 둔화
- 생산자물가 증가율도 8월중에는 2.0%로 크게 안정

<표 12>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1.5	1.4	3.2	2.9	2.3	4.2	5.3	5.0(0.2)	4.7(0.5)
근원인플레이션	0.8	1.4	2.4	2.9	1.9	4.2	4.6	4.3(0.0)	4.0(0.3)
생산자물가	2.2	1.9	2.7	1.6	2.1	2.5	3.1	2.7(0.1)	2.0(-0.4)

주 : ()내는 전월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7~8월중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이상기후에 의한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에 주로 기인
- 7~8월중 농축수산물 가격의 CPI기여도가 0.70%p로 나타나 이 기간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비)보다 높았음.

<표 13> 부문별 CPI기여도(전월비) 추이

단위 : %p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집세
2001년 1/4분기	1.93	0.62	0.12	0.63	0.49	0.10
2/4분기	0.87	0.25	0.29	0.00	0.05	0.22
7~8월	0.63	0.70	-0.09	-0.07	0.05	0.07

자료 : 통계청

4. 통화 · 금융부문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하반기 들어 콜금리 두 차례나 인하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7월과 8월 연이어 콜금리목표를 0.25%p씩 인하
- 4월중 7.7%까지 하락하였던 M3증가율은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 증가로 6월중 8.8%로 상승
-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M2 증가율은 전년동월의 높은 통화수위의 영향으로 7월과 8월중 각각 12.5% 12.4%를 기록
- MCT+ 증가율은 금전신탁 감소폭이 축소되고 단기시장성 수신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8월중 12.3%로 상승

<표 14> 주요 통화총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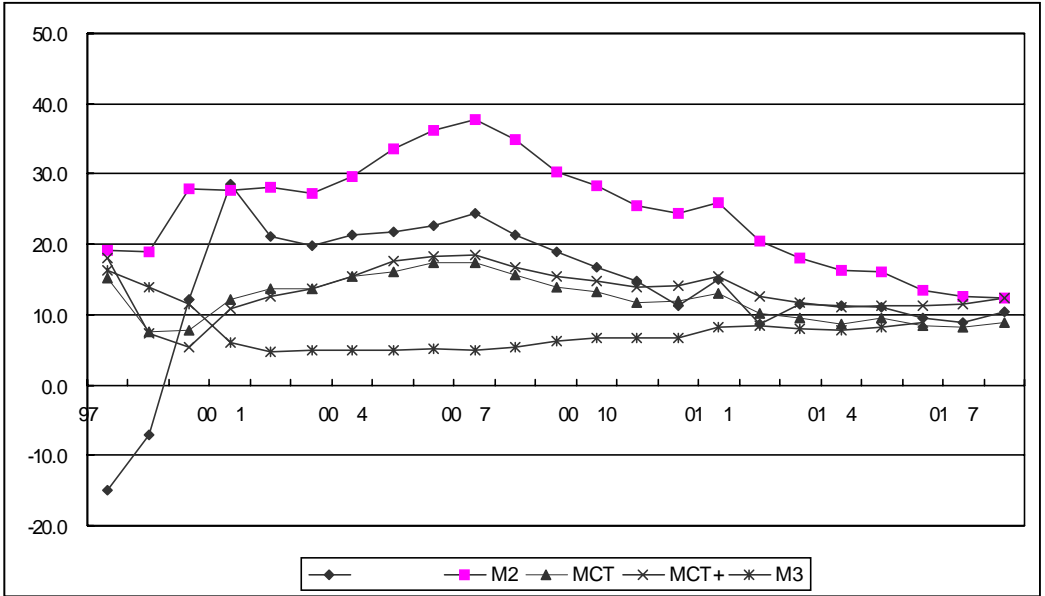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본원통화	-7.2	12.1	16.8	14.7	11.3	15.1	8.6	11.4	11.2	11.0	9.6	8.9	10.5
M2	19.0	27.9	28.3	25.5	24.5	25.9	20.4	18.1	16.3	16.0	13.5	12.5	12.4
MCT	7.5	7.7	13.3	11.8	12.0	13.1	10.2	9.5	8.7	9.5	8.4	8.3	8.8
MCT+	7.4	5.3	15.4	13.8	14.1	15.5	12.6	11.7	11.1	11.2	11.3	11.6	12.3
M3	13.9	11.4	6.7	6.6	6.7	8.2	8.4	7.9	7.7	8.2	8.8	-	-

주 : 1)MCT+=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주요통화 추이



주 :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 가계 대출 호조, 기업대출은 여전히 부진

- 은행대출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7월과 8월중 각각 5조 7,789억원과 4조 5,742억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이 가계대출
- 기업대출은 경기침체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대기업대출은 8월중 감소세로 전환
- 금년 들어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 관련 전환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발행이 순증기조를 이어왔으나 8월 들어 순상환기조로 전환

- 기업의 저금리 자금조달원 중 하나인 CP 발행은 투신사 MMF 수신고 증가로 7월과 8월중 모두 1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주식발행은 매우 저조한 모습

<표 15> 기업 자금조달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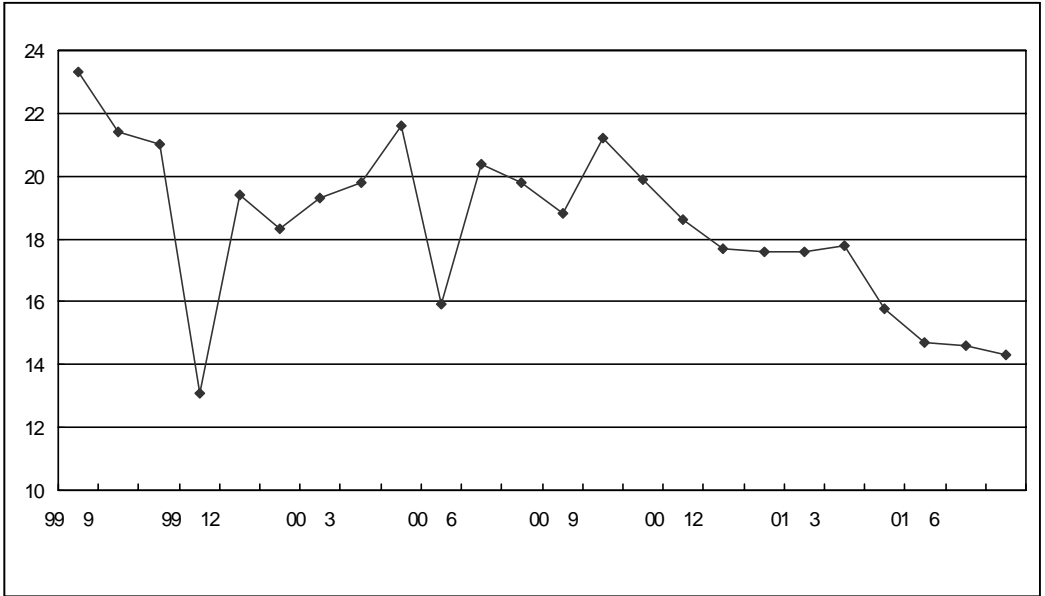
단위 : 증감액, 억원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7	8
은행대출	126,390	213,133	162,125	73,031	37,808	172,307	57,789	45,742
대기업대출	36,044	29,672	29,394	-22,608	21,042	-23,875	9,852	-8,144
중소기업대출	27,526	68,105	47,156	19,206	11,711	61,385	24,236	15,650
가계대출	46,145	94,609	50,009	72,818	38,295	122,731	24,406	41,935
회사채발행(순) ²⁾	-41,315	-24,520	5,578	-45,584 (-87,365)	53,158 (18,203)	59,547 (22,004)	28,766 (24,956)	6,193 (-1,646)
CP발행(순) ³⁾	89,207	-70,952	25,061	-48,839	63,816	1,890	17,653	11,642
주식 발행 ⁴⁾	20,636	37,727	34,757	19,599	4,478	8,924	5,323	1,365

-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2)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내는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 관련 전환사채 제외
 3) 증권사, 증금사, 은행신탁의 CP할인액 기준
 4)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및 채무재조정기업 출자 전환분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보여 주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8월중 14.3%까지 낮아져 꾸준한 하락세

<그림 4> 당좌대출한도 소진을 추이



- 대우계열사 등 既부도기업의 부도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어음부도율은 6월중 0.21%까지 하락하였으나 7월 들어 0.24%로 소폭 증가
- 부도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해 7월중 378개로 91년 2월(309개) 이후 가장 적은 수준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이 7월중 21.8배로 6월의 18.7배에 비해 크게 상승

<표 16>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4	4	5	6	7
어음부도율(전국)	0.33	0.26	0.33	0.28	0.21	0.21	0.24
서울	0.34	0.26	0.34	0.29	0.22	0.22	0.24
부도업체수(전국)	6,718	6,693	1,525	453	440	442	378
서울	2,559	2,555	580	116	157	163	128
신설법인/부도법인 ¹⁾	12.4	14.9	14.9	16.4	16.2	18.7	21.8

주 : 1)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 심화

- 하반기 들어서도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시중금리의 하락 및 비과세 고수익펀드 도입의 영향으로 7월중 투신권으로 자금유입 확대
 - 자금운용난이 반영되면서 금융기관간 상호거래의 증가도 투신사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
- 8월 들어서는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 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시입출금 및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에 국한
 - 이는 지난해 비과세고수익펀드의 잔액이 판매이후 1,000억원대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한 것과 대별되는 것으로 수익성을 선호하는 자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표 17>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2000년	2001년						
	12월말잔액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말잔액
은행계정	4,151,101	36,835	80,229	59,367	79,330	46,130	74,662	4,517,177
실세요구불	289,064	-3,688	5,589	-4,638	39,977	-24,098	6,363	285,210
저축성예금	3,532,269	39,624	65,673	37,973	22,840	52,502	57,548	3,798,064
(정기예금)	1,985,017	7,637	7,924	11,415	-2,126	33,943	19,378	2,058,960
(수시입출식)	1,020,793	22,136	41,708	14,216	12,929	1,949	28,286	1,104,497
<MMDA>	360,988	16,656	21,404	15,569	-1,885	-1,163	17,598	399,014
CD+RP+표지어음	329,768	899	8,967	26,032	16,513	17,726	10,751	433,903
금전신탁	756,929	5,518	-8,807	-15,074	-3,637	-2,440	-2,619	759,412
추가금전	47,143	6,597	-7,338	-15,087	-6,549	-1,353	544	54,879
단위금전	25,792	1,354	-529	-109	-1,360	156	3,884	23,996
신종적립	162,633	-6,183	-3,895	-5,483	-4,086	-3,873	-3,382	117,842
특정금전	161,658	-2,711	3,476	8,411	4,219	4,917	-2,991	178,337
기타	351,077	-7,525	-4,784	-4,692	2,626	-3,721	-3,856	304,358
투신사	1,332,832	37,675	-129,179	31,193	9,612	132,650	53,517	1,609,364
단기채권투자신탁	166,194	7,780	3,387	203	10,959	33,018	19,962	265,793
장기채권투자신탁	395,004	11,211	4,532	2,960	-1,167	13,180	2,679	449,432
MMF	267,806	33,521	-125,961	32,397	-15,527	72,115	11,366	407,642
주식투자신탁	-	-736	770	778	2,224	623	-87	49,382
혼합투자신탁	503,828	-14,100	-11,907	-5,145	13,123	13,714	19,597	437,115
종금사	117,246	-14,526	14,260	-4,439	-10,235	5,524	-1,856	101,490
채신예금	237,907	19,444	2,689	3,077	5,988	577	-2,177	281,425
증권사고객예탁금	60,576	-5,161	10,083	3,747	-12,765	-1,066	-309	76,135
주식형뮤추얼펀드	19,876	4,346	2,552	3,415	2,182	2,652	5,848	36,683

자료 : 한국은행

- 일부 주식시장내 유동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으나, 금리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기회복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

<표 18> 주가 추이

	2000년	200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종합주가지수	504.62	617.91	578.10	523.22	577.36	612.16	595.13	541.55	545.11
코스닥지수	52.58	84.36	76.76	68.43	78.97	81.35	76.87	68.09	64.84
다우존스지수	10,787	10,887	10,495	9,879	10,735	10,912	10,502	10,523	9,950
나스닥지수	2,471	2,773	2,152	1,840	2,116	2,110	2,162	2,027	1,805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주식 공급요인이 여전히 크지 않은 가운데 5월중 9조원대까지 증가하였던 고객예탁금 규모는 하반기 들어 7조원대로 하락
- 외국인투자자들이 6월과 7월 순매도에서 8월 들어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경기회복지연과 일부 거대 부실기업 처리문제가 여전히 주가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표 19> 주식시장 수급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억원

		2000년	200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외 국 인	주식순매수	4,903	29,635	3,589	833	652	459	-290	-237	167
	거 래 소	4,522	27,337	3,690	411	567	458	-298	-214	139
	코 스 닥	381	2,298	-101	422	85	1	8	-23	28
유 상 증 자		10,019	3,317	1,943	1,163	182	440	1,324	659	847
기 업 공 개		-	-	-	-	-	-	-	402	-
계		10,019	3,317	1,943	1,163	182	440	1,324	1,061	847
고객예탁금잔액		60,576	87,170	81,606	76,444	86,527	90,275	77,510	76,444	76,135
신 용 용 자 잔 고		1,352	1,441	1,503	1,511	1,433	1,581	1,749	1,663	1,530

주 :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용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장단기 금리 : 수급사정 호전으로 5월 이후 하락세 지속

-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완화되면서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됨에 따라 5월 이후 장단기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
- 특히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두드러져 장단기 금리차(국고채-콜)가 8월말 현재 0.59%로 크게 축소
- 지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은행의 수신 및 여신 평균금리도 동반 하락

<표 20>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 %

	99년	2000년	2001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콜(익일)(A)	4.71	6.01	5.27	5.05	4.94	5.01	5.00	5.03	4.76	4.51
CP(91일)	7.47	7.26	6.66	6.20	6.06	6.19	5.98	5.69	5.30	4.96
국고채(3년)(B)	9.22	6.70	5.68	5.43	6.31	6.80	6.17	5.93	5.58	5.15
회사채(3년)(C)	9.85	8.13	7.38	6.77	7.69	8.05	7.37	7.10	6.89	6.55
B - A(%p)	4.51	0.69	0.41	0.38	1.37	1.18	1.17	0.90	0.82	0.59
C - A(%p)	5.14	2.12	2.11	1.72	2.75	3.04	2.37	2.07	2.13	2.01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회사채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7월 들어 소폭 상승세로 반전
- 반면 CP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의 감소 추이는 7월과 8월중에도 지속

<표 21> 신용등급별 회사채 및 CP 금리격차 추이

단위 : %p

	2000년	200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회사채									
BBB+ ¹⁾	1.43	1.43	1.43	1.38	1.35	1.34	1.37	1.40	1.40
BBB- ¹⁾	3.69	4.18	5.03	4.76	4.69	4.28	4.11	4.13	4.17
CP									
A2 ²⁾	0.18	0.15	0.13	0.13	0.13	0.12	0.11	0.09	0.07
A3 ²⁾	0.88	0.84	0.80	0.77	0.75	0.74	0.72	0.70	0.66
B ²⁾	4.35	4.32	4.25	4.23	4.21	4.21	4.21	4.20	4.19

주 : 1) 우량기준물(AA-)과의 금리격차

2) 우량기준물(A1)과의 금리격차

자료 : 한국은행

환율 및 외채 현황

- 하반기말 엔화의 불안한 움직임과 양호한 달러수급이 대립적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환율은 1,300원을 중심으로 상하한 폭이 제한되면서 등락을 거듭
- 원·달러환율은 7월 초순 남미지역 금융위기 가능성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엔화가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 일시적 강세로 반전되면서 점진적 하락세

<표 22>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99년	2000년	2001년							
	12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원/달러 ¹⁾	1138.00	1264.50	1259.00	1250.80	1327.50	1319.7	1282.7	1297.5	1300.00	1278.00
	(+5.8)	(-10.0)	(+0.4)	(+1.1)	(-4.7)	(-0.6)	(+2.1)	(-1.1)	(-0.1)	(+1.7)
엔/달러 ²⁾	102.23	114.41	116.52	117.35	126.18	123.6	119.19	124.72	125.09	118.86
	(+11.0)	(-10.6)	(-1.8)	(-2.5)	(-7.5)	(+2.1)	(+3.7)	(-4.4)	(-0.3)	(+5.2)
원/100엔 ³⁾	1111.17	1101.78	1081.62	1072.73	1057.07	1067.7	1073.39	1043.51	1039.46	1075.20
	(-4.6)	(+0.9)	(+1.9)	(+2.7)	(+4.2)	(-1.0)	(-0.5)	(+2.9)	(+0.4)	(-3.3)

-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대비 절상(+), 절하(-)율(%)

- 총대외채권과 순채권규모는 7월말 현재 각각 1,636억 달러와 382억 달러로 3월 이후 증가 추세

<표 23> 총대외지불부담과 채권 동향

단위 : 억달러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말	연말	연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
총대외지불부담	1,487	1,371	1,363	1,317	1,298	1,292	1,287	1,270	1,254
장기외채	1,180	978	921	898	875	865	858	859	863
단기외채	307	392	442	418	424	427	429	411	391
(비 중)	(20.6)	(28.6)	(32.4)	(31.7)	(32.7)	(33.0)	(33.3)	(32.4)	(31.2)
총대외채권	1,285	1,454	1,669	1,648	1,619	1,626	1,631	1,618	1,636
순채권	-202	83	306	331	321	333	344	348	382

자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미국경제의 부진이 유럽 및 일본경제의 동반침체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대폭 낮아지고 회복시기도 금년 말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 확대
 - 최근 IMF는 2001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당초 3.2%)로 하향 조정
-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2002년 연간 3.6% 정도 성장할 전망
 -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로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경우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에 들어설 가능성

미국경제 : 회복 기대 불구 경기 둔화 지속

- 2001년 2/4분기중 미국경제는 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2% 성장하여 1/4분기(1.3%) 보다 성장률 대폭 둔화
-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15.1%), 비주거용 건설투자(▽13.4%), 그리고 수출(▽12.2%) 등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표 2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계절조정 전기대비(연율 %)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2.3	5.7	1.3	1.9	1.3	0.2
민간소비	5.9	3.6	4.3	3.1	3.0	2.5
민간투자	▽0.6	19.5	▽2.8	▽2.3	▽12.3	▽12.3
소비자물가	1.0	0.7	0.7	0.8	1.0	0.8
수출(십억달러)	257.3	265.8	272.5	270.1	269.3	260.6
수입(십억달러)	344.6	356.6	369.8	370.4	364.3	350.5

자료 : 상무성, 노동성

- 3/4분기 중 미국경제는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경기부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
- 7월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여 작년 10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고 가동률지수도 77.0으로 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소비는 7월중 개인소비지출이 0.1% 증가에 그치고 소매판매액은 0.1% 감소함으로써 사실상 정체 수준. 소비자신뢰지수가 7~8월 연속 하락하고 8월중 실업률이 4.9%로 급등함에 따라 소비둔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표 25> 미국경제의 최근 추이

단위 :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7월
산업생산	1.6	1.9	0.9	▽0.2	▽1.7	▽1.0	▽0.1
개인소비지출	1.7	1.4	1.7	1.3	1.5	1.0	0.1
실업률	4.0	4.0	4.0	4.0	4.2	4.5	4.9 ¹⁾

주 : 1) 8월

자료 : FRB, 노동부, 상무성

- 미국경제는 경기부진 지속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1%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나 2002년에는 성장률이 2.5%~3.0%로 높아질 전망
- 금리인하와 조세감면의 수요진작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
- 경기회복은 내년 상반기중 非IT 산업부문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반기에 IT부문으로 확산될 전망

일본경제 : 장기불황 지속

- 2001년 2/4분기중 일본경제는 투자 및 수출 부진, 공공투자 축소로 실질GDP가 전분기대비 0.8% 감소

- 성장률 저하요인 : 민간투자(▽3.9%), 수출(▽2.9%), 공공투자(▽4.1%)

<표 2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계절조정,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2.4	0.1	▽0.7	0.6	0.1	▽0.8
민간소비	2.0	0.1	0.0	▽0.6	0.6	0.5
고정투자	2.4	▽3.1	1.3	6.3	▽1.8	▽3.9
소비자물가	▽0.1	▽0.3	▽0.1	▽0.1	0.3	▽0.6
수출(천억엔)	118.6	122.2	126.5	128.0	121.4	116.6
수입(천억엔)	86.5	88.7	92.7	101.8	99.4	96.6

자료 : 경제기획청, 일본은행

- 3/4분기중 일본경제는 생산, 투자, 소비 등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양상
- 7월중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8% 감소하며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5.0%로 전후 최고수준을 기록
- 수요부문에서도 도소매판매가 7월중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도 6.4% 감소하며 4월 이후 감소세 지속

<표 27> 일본경제의 최근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7월
산업생산 ¹⁾	0.7	2.0	1.5	0.6	▽3.7	▽4.1	▽2.8
도소매판매	▽1.8	▽0.7	▽1.4	1.5	0.2	▽0.8	▽2.7
수 출	3.2	9.0	7.9	8.9	3.2	▽3.4	▽6.4
실업률	4.8	4.7	4.7	4.8	4.8	4.9	5.0

주 : 1) 전기대비

자료 : 통상산업부, 총무부, 경제기획청

- 일본경제는 하반기에도 내수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2001년 연간 마이너스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연간성장률도 0.1%에 그칠 전망이다
- 추경에 의한 수요진작이 기대되나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
- 실물경제의 침체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경기침체는 내년부터 전세계로 파급될 가능성

유로경제 : 경기 둔화 지속, 금리인하에 기대

- 1/4분기중 0.5% 성장에 그친 유로경제는 2/4분기 이후에도 생산,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양상
- 산업생산은 6월에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전체로는 0.8% 감소하였고 경기체감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올 들어 7개월 연속 하락

· 소비자물가는 2/4분기중 전분기대비 1.3%까지 상승하였으나 7월 들어 0.1% 감소로 돌아서며 오름세 둔화(전년동기대비 2.8% 상승)

- ECB는 2/4분기 경기의 급속한 둔화에 대응하여 8월말 기준금리를 0.25%p 인하

<표 28> 유로경제의 최근 추이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7월
산업생산지수 ¹⁾	1.1	2.4	0.6	1.4	▽0.3	▽0.8	-
경기체감지수 ²⁾	104.3	104.6	104.2	103.3	102.9	101.8	100.6
소비자신뢰지수	▽0.3	0.0	▽0.7	▽2.7	▽1.7	▽3.7	▽7.0
소비자물가 ¹⁾	0.8	0.7	0.7	0.6	0.6	1.3	▽0.1
실업률	9.3	8.9	8.7	8.5	8.4	8.3	-

주 : 1) 전분기대비 증감률 2) 1995=100

자료 : Eurostat, ECB

■ 유로경제의 1/3을 차지하는 독일은 1/4분기중 0.4%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4분기에는 제로 성장(전년동기대비로는 0.6% 성장)

· 7월에도 ifo 경기지수,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부진 지속

<표 29>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7월
경제성장률 ¹⁾	1.0	1.2	0.1	0.2	0.4	0.0	-
산업생산지수 ¹⁾	1.6	1.9	1.3	1.4	0.6	▽1.7	-
ifo 경기지수	100.5	101.2	98.6	96.9	95.4	90.9	89.8
소비자신뢰지수	100.3	97.3	98.0	99.3	99.0	96.0	90.0
실업률	10.1	9.6	9.5	9.3	9.3	9.3	9.3

1) 전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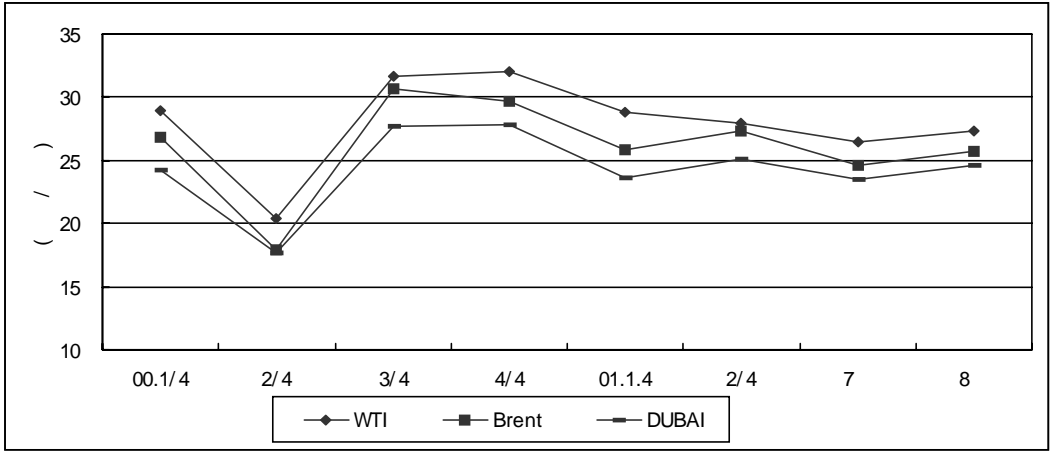
- 유로경제는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2% 내외의 성장에 그치나 2002년에는 금리인하 효과와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5% 성장할 전망
- 독일경제는 2001년 1.0% 내외, 2002년 2% 내외로 성장할 전망

2. 원자재 가격

유가 : 소폭 상승 전망

- 국제유가는 8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하여 배럴당 25~27달러 수준
- 4/4분기 국제유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OPEC 감산 등으로 현 수준보다 1~2달러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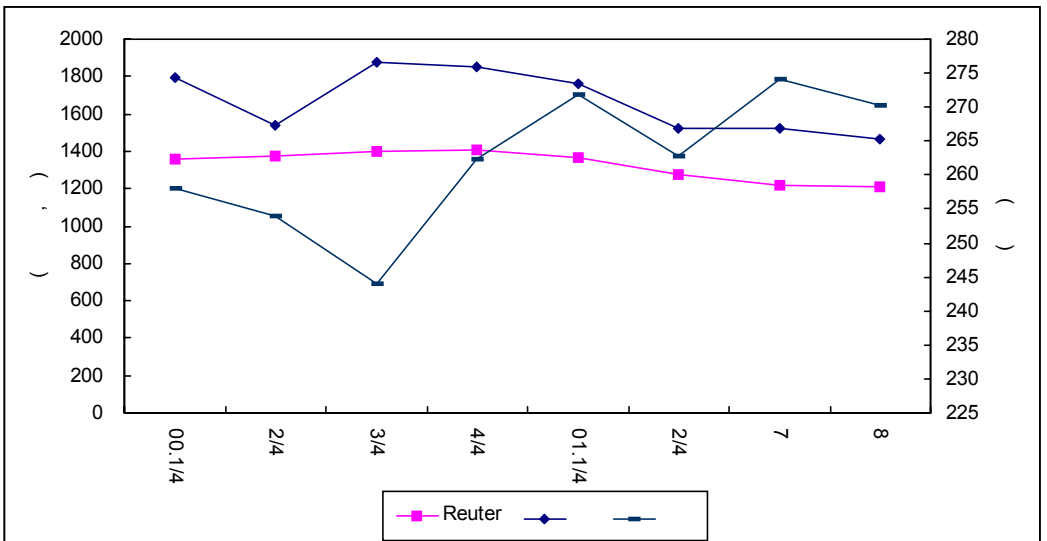
<그림 5> 국제유가 추이(기간평균)



■ 동, 소맥 등 기타원자재 가격은 수요감소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그림 6>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지수, 동(달러/톤), 소맥(센트/부셸)



3. 국제금리 ·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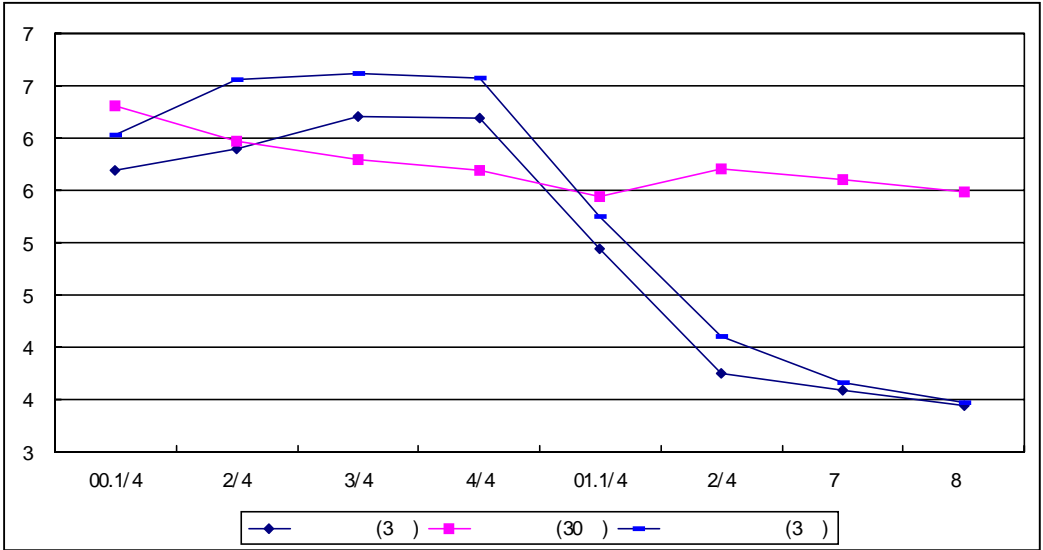
금리 하락세, 엔화 및 유로화 강세

- 7월 이후 장 · 단기금리 모두 하락세
- 경기둔화 지속과 이에 대응한 FRB와 ECB의 금리인하
 - FRB가 올 들어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올 초 6.5%이던 연방기금금리가 3.5%로 하락
 - ECB도 올 들어 두 번째 금리를 인하. 이에 따라 올 초 4.75%이던 단기정책금리는 4.25%로 하락

<표 30>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3월말, 기간말, %)

	2000				2001		
	1/4	2/4	3/4	4/4	1/4	2/4	7월
미국	6.20	6.79	6.67	6.54	4.96	3.83	3.75
일본	0.14	0.13	0.41	0.62	0.19	0.07	0.08
유로	3.75	4.50	4.85	4.93	4.71	4.45	4.47

<그림 7> 미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월평균)



■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

· 미 경기회복 지연 및 ECB의 금리 인하에 기인

<표 31> 엔화 환율 및 유로화 환율 추이(기말기준)

	2000년			2001년		
	2/4	3/4	4/4	1/4	2/4	8월
엔/달러	106	108	114	126	125	119
달러/유로	0.95	0.88	0.94	0.88	0.85	0.91

제 3 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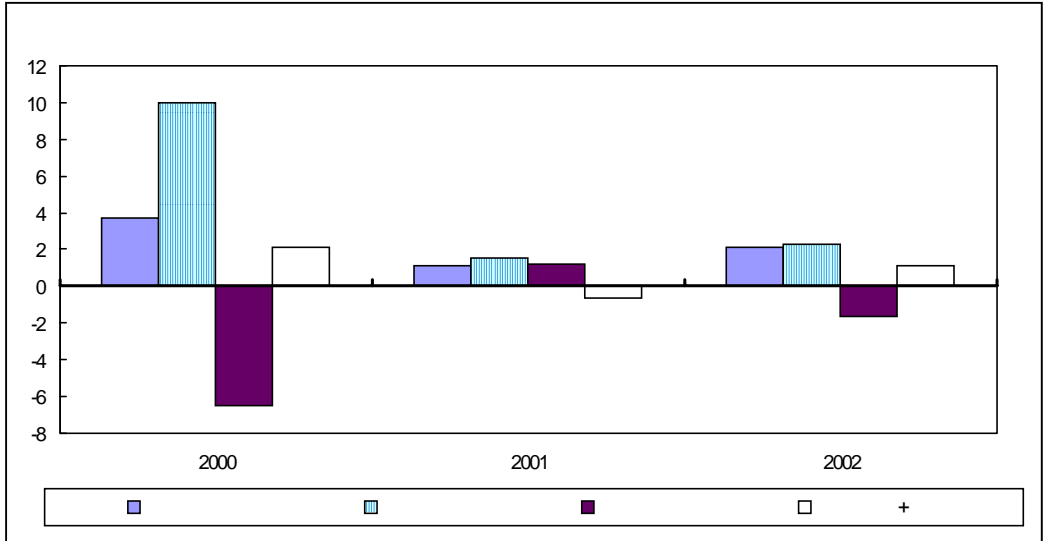
1. 실물부문

금년 성장률 2.7%로 크게 낮아질 전망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음.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수출의 비중은 1997년 이전까지 30%를 하회하였으나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45%에 달했음.
-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나타난 결과임. 그 덕분에 우리 경제는 2000년까지 2년동안 호황을 누렸음.
- 반면, 높아진 대외의존도는 우리 주요수출시장의 경기침체를 여과없이 국내경기에 파급시켜 국내경기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음.

- 높아진 대외의존도 때문에 본원의 지금까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망치 하향요인 (downside risk)’으로 지적해 온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재 시현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4/4분기 이후 내수가 크게 감소한 데다 수출마저 3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7~8월중에는 감소폭이 20% 가까이 확대
- 이로 인해 최근 실물경제의 둔화추세가 더욱 심화됨.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7월중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 그나마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소비도 7월중에는 6월에 비해 1.1% 감소세를 보임.
- 내수 각 부분의 지속적 악화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의 가시화의 시점과 속도는 미국경제의 회복 특히 IT분야의 회복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아직까지도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미국의 경제지표를 감안해 볼 때, 미국경제가 금리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효과로 연말 회복세가 예상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 이에 따라 3/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2/4분기보다 더욱 낮은 1.1%에 그치고 4/4분기중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수준인 3.1%의 성장률에 그칠 전망이어서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8.8%)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2.7%로 전망됨.
- 이러한 저성장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내년 상반기중 성장률은 4%를 넘지 못할 전망. 그러나 하반기중에는 수출 및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4.9%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2002년 연간 성장률은 4.4%가 예상됨.

<그림 8> 최종수요부문별 성장 기여도



- 지난번에 이어 대외여건의 향방, 특히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와 그에 따른 우리 수출 실적 호전이 본원 전망의 가장 큰 '전망치 하향요인(downside risk)'으로 남아 있음.
-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추가예산 등의 경기 진작노력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기는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2. 물가부문

물가상승압력 크지 않아 점차 하향 안정화될 전망

- 하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환율, 원자재가격 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요인들이 안정되고 상반기중 물가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공공요금인상도 정부의 노력으로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점차 하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금년 3/4분기중에는 4.8%, 4/4분기중에는 4.1%의 상승률이 예상되며 연간 전체로는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중에도 우리 경제가 4%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3.0%, 하반기중에는 3.4%의 상승이 예상되어 연간 전체로는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부문

수입증가세 빨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점차 축소될 전망

-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금년중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하반기 이후 수출감소세가 수입감소세를 상회하는 추세가 예상되면서 금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년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IMF차입금 상환에 따른 대외이자지급 감소로 소득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상품수지 흑자는 작년(166억달러)보다 11억달러 축소된 155억달러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117억달러로 작년(110억달러)보다 7억달러 증가할 전망
- 2002년에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투자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출증가세보다 수입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2001년보다 축소된 각각 115억달러, 69억달러로 전망됨.

<표 32>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 총생산	8.8	3.7	2.7	1.1	3.1	2.7	3.9	4.9	4.4
(제조업)	15.3	4.4	2.2	1.0	4.2	2.9	5.0	6.3	5.7
총소비	6.2	0.4	2.4	2.2	2.6	1.9	2.9	4.2	3.6
민간소비	7.0	0.9	2.9	2.6	3.2	2.4	3.7	4.9	4.3
고정자본형성	10.9	-3.7	-4.7	-3.3	0.3	-2.8	1.4	4.8	3.2
설비투자	34.1	-7.9	-10.8	-8.6	-0.5	-7.1	1.8	8.8	5.3
건설투자	-4.0	1.4	0.9	1.3	0.8	1.1	1.0	1.9	1.5
총수출	21.5	8.4	1.2	-2.1	3.8	2.8	4.1	4.9	4.5
총수입	19.9	-0.7	-7.2	-6.9	1.2	-3.4	4.1	5.7	4.9
생산자 물가	2.0	2.5	3.1	2.6	2.3	2.6	2.0	2.3	2.1
소비자 물가	2.2	4.2	5.3	4.8	4.1	4.6	3.0	3.4	3.2
경상수지	110.4	30.7	38.3	27.7	20.5	117.2	41.4	28.0	69.4
상품수지	166.0	34.6	52.5	37.0	31.0	155.1	61.5	53.6	115.0
수출	1,757.8	406.6	387.9	379.4	416.8	1,590.7	799.5	858.0	1,657.5
증가율 (%)	21.1	-1.9	-12.0	-16.4	-7.1	-9.5	0.6	7.8	4.2
수입	1,591.8	372.0	335.4	342.4	385.8	1,435.6	738.0	804.4	1,542.4
증가율 (%)	36.3	-4.7	-15.0	-14.4	-5.2	-9.8	4.3	10.5	7.4
서비스, 소득 & 이전	-55.6	-3.9	-14.2	-9.3	-10.4	-37.8	-20.1	-25.6	-45.6
원/달러 환율(기말)	1,259.7	1,327.5	1,297.5	1,280.0	1,260.0	1,260.0	1,245.0	1,230.0	1,230.0
엔/달러 환율(기말)	114.4	126.2	124.7	119.0	118.0	118.0	116.5	115.0	115.0
M3증가율(평균, %)	5.7	8.2	8.1	7.7	7.4	7.8	7.9	8.2	8.1
회사채수익률(평균, %)	9.4	7.3	7.5	6.7	7.0	7.1	7.1	7.7	7.4

4. 금융부문

장단기 금리 : 4/4분기초까지는 현 수준유지 전망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회사채 만기물량 규모를 감안할 때 회사채발행 수요는 차환과 운영 중심으로 하여 당분간 순발행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 금년 연말까지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유지될 것이고 기업들의 설비자금 수요도 미미하기 때문에 회사채발행 물량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
- 연말에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심각한 신용경색은 없을 것으로 보임

<표 33> 2001년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A등급 이상	1.0	2.2	2.0	3.9	3.0	1.6	13.7
BBB 등급	0.5	0.4	1.3	1.6	1.7	2.3	7.8
BB등급 이하	0.9	0.9	0.7	0.5	1.0	2.0	6.0
워크아웃 등	0.9	1.6	0.4	1.4	0.9	1.3	6.5
합 계	3.3	5.1	4.4	7.4	6.6	7.2	34.0

주 : ABS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하고 투자자금수요 부진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채권시장 이외에 적절한 자금운용처가 미흡함에 따라 금년 최소한 3/4분기와 4/4분기 초까지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전망
- 4/4분기 후반에는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은의 신축적 유동성 관리로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2002년에도 점진적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표 34>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2000년					2001(E)년					2002(E)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E)	4/4(E)	연간	연간
콜	4.96	5.08	5.07	5.30	5.09	5.13	5.03	4.63	4.65	4.86	5.00
회사채	10.1	9.9	9.0	8.4	9.4	7.3	7.5	6.7	7.0	7.1	7.4

주 : 기간 평균기준임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유례없는 저금리기조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 또는 축소하는 현상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따라서 내년에도 구조조정 및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관들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

원·달러환율 : 소폭의 원화강세 추세 유지전망

- 수출부진과 IMF 차입금 전액상환 등 달러화 자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990.2억달러로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규모도 감소하고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표 35>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2월	12월	12월	3월	6월	7월	8월
외환보유고	520.4	740.5	962.0	944.4	942.6	970.6	990.2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3.3	53.0	45.9	44.9	43.6	40.2	-

주 :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의 기준은 안정수준(60% 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으로 분류

자료 : 한국은행

- 향후 미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상황과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엔화의 강세현상은 제한적일 전망
- 수출이 부진하다고 하나 외환보유액과 거주자외화 예금잔액이 풍부한 상태이고 하반기 예정된 외자유치 자금규모도 70~80억달러로 추정되어 전반적인 외환시장 수급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편
- 국내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 등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세가 유지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 원·달러환율은 엔화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상하방 경직성을 가지며 하반기중 박스권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연말 1,250원정도에 머물 예상
- 미국의 경기회복이 급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002년에도 원화강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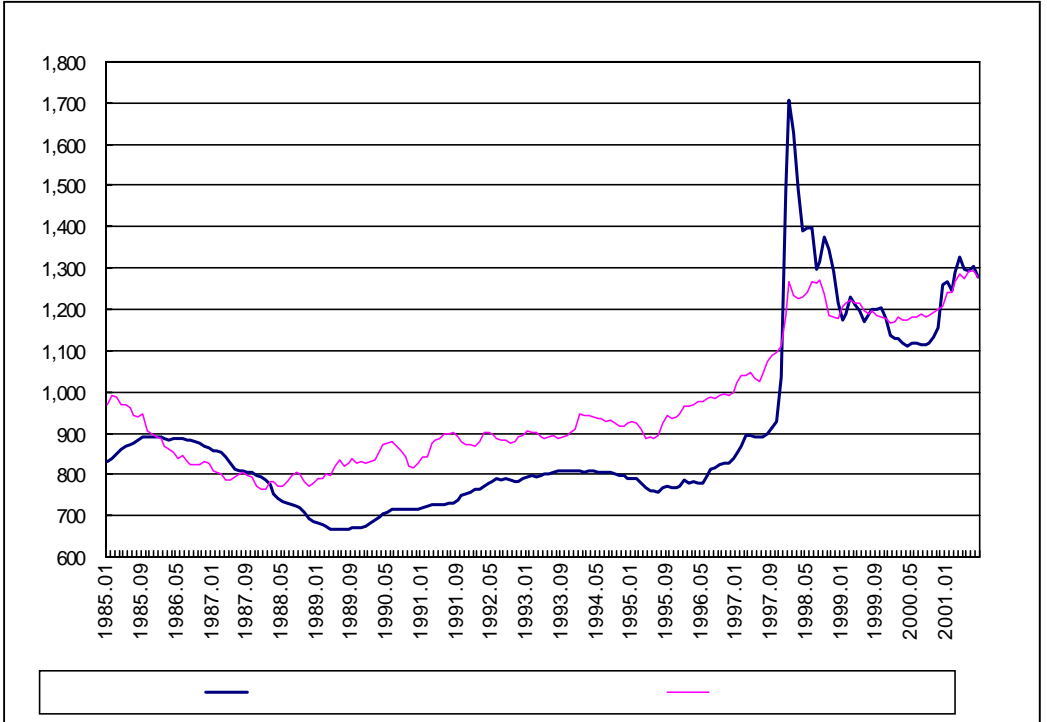
<표 36> 환율 전망

	1999년	2000년				2001(E)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3/4(E)	4/4(E)	
원·달러	1138.0	1108.3	1114.8	1115.0	1259.7	1327.5	1297.5	1280.0	1250.0	1230.0
엔·달러	102.2	102.7	106.0	108.2	114.4	126.2	124.7	119.0	118.0	115.0

주: 기간말 기준

- 작년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실질실효환율 차원의 원화의 적정환율(한국경제연구원 모형으로 추정)은 금년 하반기 이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작년 12월 이후 실제환율이 실질실효환율 기준(1985년 경제기준) 적정환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8월 들어 거의 근접하고 있음.

<그림 9> 실제환율과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급락이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전월차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지표들 중 건축허가면적의 큰 증가에 의해 나타난 현상임.

<표 37> 경기선행지수의 추이

단위 : 95=100.0, 전년동월비 %, %p

	2000.12	2001.1	2	3	4	5	6	7
경기선행지수	132.3	131.5	132.1	132.4	132.4	132.6	133.1	133.5
전년동월비	-1.1	-2.1	-1.8	-1.8	-1.8	-1.6	-0.9	-0.4
전월차	-1.2	-0.9	0.2	0.0	0.0	0.2	0.6	0.5
건축허가면적	-24.4	5.2	5.1	9.8	-8.3	21.9	21.0	14.2

자료 : 통계청

- 수출용수입이 작년 전체 수입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점, 최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 미국경기가 금년 4분기 경에 회복될지라도 그 효과가 우리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 전망을 불투명함.
- 작년 말 회사채신속인수제 도입, 정책금리 인하조치, 자금수요부족, 신용경색 등으로 실세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시중자금의 흐름은 아직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자금여력이 풍부한 은행권의 간접금융도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하락 폭이 크지 않고, BIS비율 등의 제약에 의해 은행권은 가계 및 일부 우량기업에 대출을 집중하는 등 방어적으로 대출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기업들은 부채비율, 출자총액, 대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신규투자에 소극적이고, 부채조절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자금운영을 하고 있음.
- 우량기업들의 회사채발행도 금리재테크의 일환으로 만기상환에 맞추어 회사채발행을 통해 금융비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한 현금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당분간 기업의 투자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금년 상반기 침체상태에 있는 미국·일본·EU 경제의 회복전망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투명하여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내년에도 해외경기가 획기적으로 회복되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현 경제정책의 평가

- 최근 국내경제는 대외 수출시장의 침체와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시키려 해도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와 실제정책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통화신용정책 : 정책효과 미흡과 정책 기조와 운영상의 혼선
 - 신용경색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금융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지난 2월,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세 차례나 인하하여 사상 최저수준인 4.5%로 하향 조정하였음.
 - 금리인하는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막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총수요 진작정책인 동시에, 은행권에 몰려 있는 자금을 직접금융시장으로 이동시켜 자금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나, 아직은 금융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거나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금리인하로 은행권의 자금이 투신사로 이동하여 금년 4/4분기에 회사채 만기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험으로 볼 때 은행권의 자금이 회사채 시장보다 국공채나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통해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려 하지만, 본원통화, MCT, M2 및 M3 등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등 신용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 만큼의 유동성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있음.
- 최근 통화신용정책은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금리인하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금융시장내의 신용경색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충분치 못하여 금리인하효과가 상쇄되고 있음.
- 재정정책 : 예산 배정과 집행간의 불일치와 균형재정 목표 집착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반기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이 세금징수에 비해 충분치 않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오히려 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임.
- 보다 중요하게, 통합재정수지 중 공공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세입세출도 상반기 동안 조세수입 등으로 57.2조원을 거둔 반면에, 순융자를 포함하여 51.8조원만을 지출하여 5.4조원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재정지출보다 세금을 더 거두는 재정흑자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총수요진작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임.

<표 38> 통합재정수지의 추이

단위 : 조원,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0년 상	2001년 상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1 (0.3)	-7.0 (-1.5)	-18.8 (-4.2)	-13.1 (-2.7)	6.5 (1.3)	15.6 (3.0)	13.0 (2.3)
-세입세출	2.0	-0.3	-11.6	-8.0	3.7	12.7	5.4
-공공기금	-0.9	-6.7	-7.2	-5.1	2.8	2.9	7.6

자료 : 재정경제부

- 환율정책 : 어느 정도의 환율절상은 용인
 - 금년 초 원화가치의 하락과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불안감 증대 등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최근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화가치가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어느 정도의 환율절상을 용인하는 환율정책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 금리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책운용 방식이 지속된다면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거시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시정책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가 요망되나 정부는 과거의 규제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일률적인 부채비율 감축, 신규투자 진출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M&A나 해외매각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형편임.

- 더욱이, 기존의 사전적 기업경영규제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시장개방 등으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노동정책 :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악화
 - 실업률은 지난 2월 5.0%를 고비로 하여 7월에 3.4%로 하락해서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2월 50.2%에서 7월에는 51.8%로 증가하여 고용구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한편 유효성이 적은 정리해고제나 포괄적 고용승계제 등에 의해 M&A나 외국인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음.
-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국내시장개념에 얽매인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함.
 - 국내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어 해외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폐쇄된 국내시장의 시각에서 본 국내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큰 의미가 없음.

3. 향후 경제정책 방향

가. 정책유효성의 제고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신축적인 거시정책 요망

- 향후 경제정책방향은 그 기초를 분명히 하여, 경기활성화의 정책기조와 정책추진내용과의 일관성을 회복함으로써 정책 유효성을 높여야 함.

■ 통화신용정책 : 유동성공급 확대 및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 유도

- 통화신용정책의 기초를 분명히 하여 통화공급정책과 금리정책이 상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만일 한국은행이 현재와 같이 금융완화를 정책기조로 삼는다면, 단순한 저금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유동성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통화유통경로의 정상화 및 신용경색 해소에 노력하여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함.
- 금융시장, 특히 은행의 소극적 대출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회사채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자금시장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함.
- 현재의 정책금리수준을 유지하되, 경기급락이 나타날 경우에 탄력적인 정책운용을 고려해야 함.

■ 재정정책 :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 등 경기조절기능 강화

- 통화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은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함.
- 예산이 배정된 재정지출의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의 배정과 집행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함.
-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에 도움을 주는 SOC사업 등과 같이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정부가 2003년 재정건전화 목표에 집착할지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재정흑자기조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환율정책 : 제한적인 환율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환율안정 추구
 -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시장개입을 가능한 피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환율변화를 용인 하되,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수준에서의 제한적 환율정책이 요망되고,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장기적으로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 금리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음.
- 단기적인 거시경제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이 요망됨.
 -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 경제회복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한 보다 장기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이 요망됨.

나. 글로벌경제에 걸맞는 규제·제도 개선과 기업활동의 활성화 유도

- 기업정책 :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규제정비 및 제도개선에 노력
 -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정비와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함. 또한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의 전환해야 함.
 - 부채비율이나 사외이사비율 등과 같은 획일적인 정책지침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책임 및 권한 등과 같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그러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개선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기업들의 행태가 바뀌는데 10~20년이 걸린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임을 명심해야 함.

다.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개혁 지속과 균형적인 노사관계 정립

-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 정책 :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
 - 현 상황에서의 정부주도 구조개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개혁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기업구조조정체제의 조성을 위해, 퇴출관련 제도정비 및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함.

- 시장자율에 따른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시장충격을 줄 수 있으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임.
- 노동정책 : 균형잡힌 노사관계의 정립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추진
 -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노동정책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함.
 - 아울러 실효성이 없는 정리해고제를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및 M&A 촉진을 위해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 또한 실업대책으로는, 단순취로사업 등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됨.

<정책논단>

채권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I. 문제 제기

-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더불어 직접금융시장의 두 축을 구성함. 직접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역할 부진이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금융구조의 큰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 동안 채권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규모가 작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채권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외형성장을 기록했음. 예를 들어 상장채권 규모로 보았을 때 최근 10년 사이에 그 규모가 약 8배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주식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상장총액기준 2.6배 증가에 그쳤음. 따라서 채권시장의 외형상의 성장이 괄목할 만했음.
- 이런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역할 증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채권시장의 기업부문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역할 부진에 기인함.

- 그 동안의 채권시장의 규모확대는 무엇보다도 국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발행한 채권의 급등에 기인한바 큼.
- 이런 추세는 상장채권의 구성비를 보면 명약관화함. 1995년도에 상장채권 중 45%에 달했던 회사채 비중이 그 동안 공채발행 증가에 따라 2000년에 와서는 30%로 떨어졌음.
- 이런 공채규모의 증가는 금융구조조정 재원마련 차원에서 불가피하였던 면이 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민간자금의 수요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음.
- 이런 현상은 민간자금 수요가 위축됨과 동시에 공공부문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함. 하지만 한 가지 큰 상이점은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이 공공자금 수요의 주요 원인인 반면 한국의 경우 구조조정관련 자금수요가 제일 큰 요인임.
-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강력히 추진해 온 획일적 부채비율 200% 강제 의무화 조치도 큰 규모의 공공자금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이 조치는 자금 초과수요현상에 수반되는 부정적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 그 동안 이 조치의 중요한 다른 목표인 금융구조조정 재원조성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의 부채과다 여부를 나타내 주는 정보변수가 널리 쓰임에 따라 향후 부채비율 200%의 강제적 성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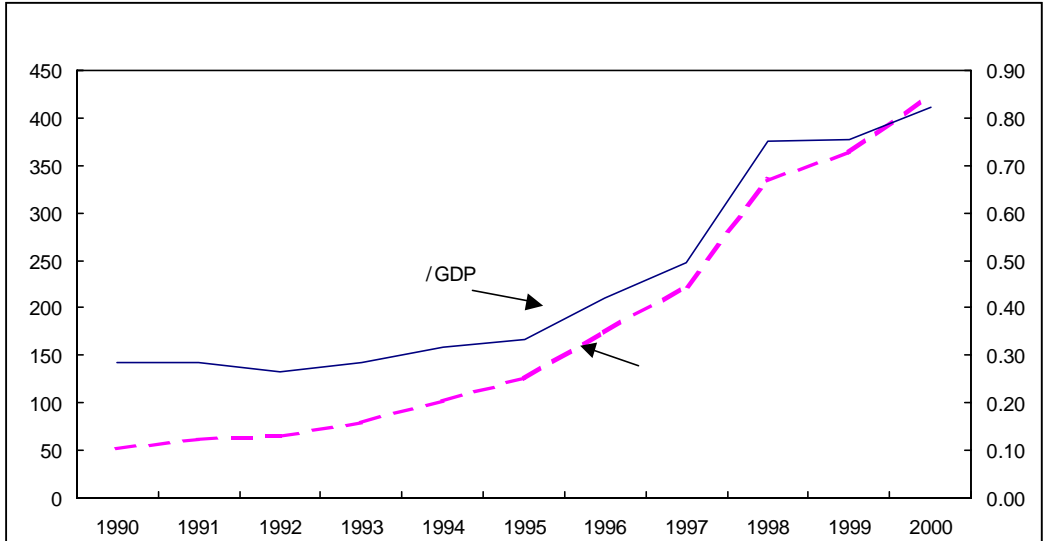
- 향후 채권시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현재 늘어난 공공채권의 정비,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공공채권분야의 정비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증대에도 매우 중요함.

II. 1990년대 후반 채권시장 주요 추세와 특이점

1. 채권시장규모

- 한마디로 채권시장 규모는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왔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성장세가 더욱 빨라졌음.
- 총잔액 규모로 90년대초 50조원에 못 미치던 시장규모가 1994년에 100조를 상회하였고 그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에는 424.7조원에 달하고 있음. 시장규모가 10년 사이에 약 8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주식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상장총액기준 2.6배 증가에 그쳤음. 따라서 채권시장의 외형상의 성장이 괄목할 만했음.
- 채권시장의 성장은 그 절대적인 규모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비교했을 때, 즉 경상 GDP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그림 1>. 상대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채권 상장총액은 경상 GDP의 약 40%에 머무르다 2000년도에 와서는 80%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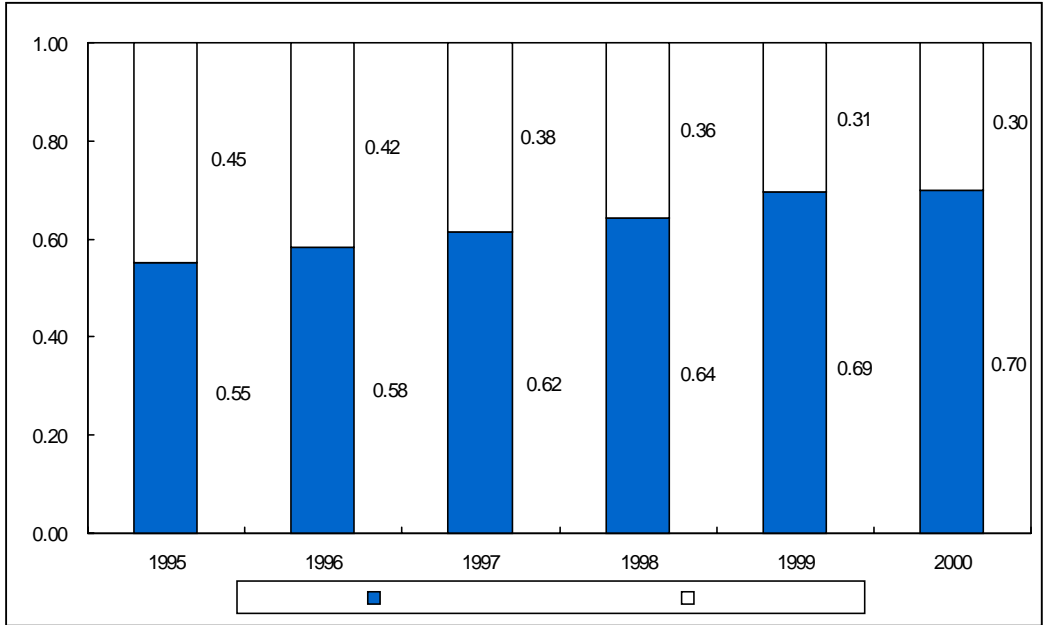
<그림 1> 총 상장채권 잔액 및 잔액/GDP비율



2. 채권시장의 구성

- 상기한 채권시장규모 확대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첫째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채권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에 큰 변화가 있었음. 회사채 비중이 급감했고 그 대신 공공부문채권의 비중이 크게 늘었음.

<그림 2> 상장채권 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01.

- 이런 공채의 급증현상은 총액 중 각종 채권이 차지하는 구성비 추세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짐. 1995년에 총 상장채권의 45%가 회사채였음. 이 비율이 2000년에 와서는 30%로 떨어졌음. 반면 공채의 비중은 95년 55%에서 2000년에는 70%로 크게 올랐음.
-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절대 발행잔액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음. 회사채의 경우 1995년 56.5조원에서 5년 후인 2000년에는 127.9조원으로 약 2.5배 늘었음. 하지만 공채의 경우 95년 69.5조원에서 2000년말에는 296.8조원으로 8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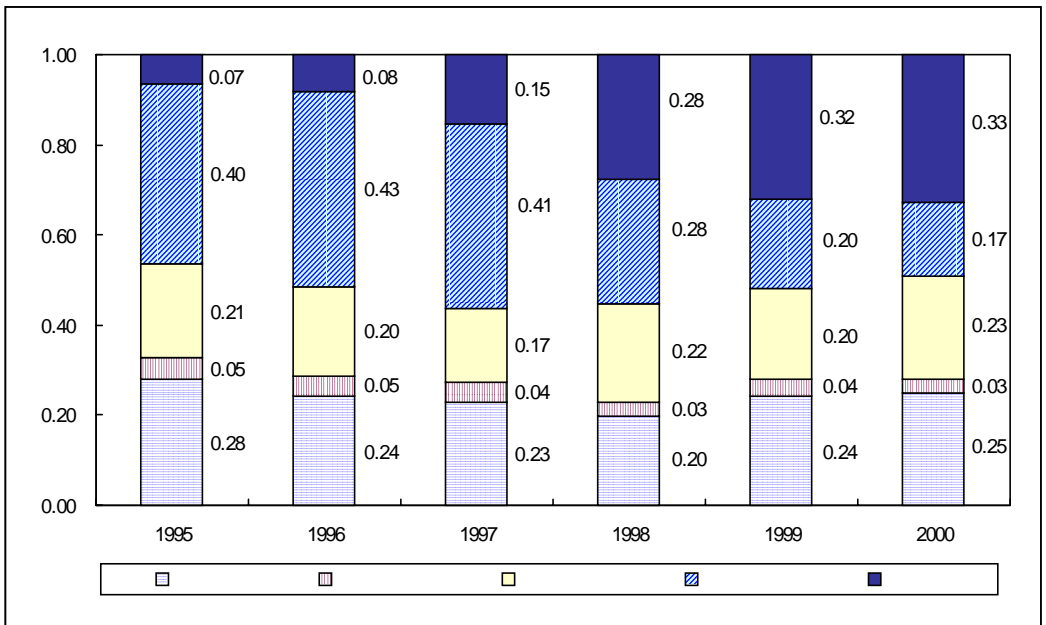
<표 1> 각종 상장채권 추이

단위 : 조원, 연말기준

연도	회사채	공채					
		합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안채
1995	56.5	69.5	19.5	3.2	4.6	27.7	14.5
1996	73.1	102.4	24.8	4.6	8.5	44.3	20.1
1997	86.0	138.1	31.5	6.0	20.9	56.6	22.8
1998	119.4	214.7	42.1	7.1	59.0	59.5	46.6
1999	111.1	253.3	61.6	9.1	81.4	50.1	50.8
2000	127.9	296.8	73.3	9.8	96.5	49.1	66.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증권거래소 증권통계연보

<그림 3> 공채의 구성비



자료 : 증권거래소 증권통계연보, 주식, 각년도

- 둘째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채 중에서도 특수채의 비중이 특히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95년 채권시장 총액의 4%에 불과하던 특수채 비중이 2000년에는 23%로 약 5배 증가하였음. 특히 1997년도에 9%에 불과하던 특수채의 비중이 다음 해에 18%로 급증하는데 이는 특수채 발행이 1998년에 급증하였다는 것을 말해줌.
- 98년에 금융권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었던 것이 98년 급증의 이유임.
- 특수채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금융권의 자금조달 수단인 금융채의 발행은 95년의 22%에서 2000년에 12%로 감소하였음.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거와 같은 적극적 기업금융을 기피하면서 자금수요가 떨어진 것과 부동산자금의 은행집중에 따른 여유자금이 풍부해진 것을 반영함.
- 이렇게 공공부문의 중요도가 커진 것은 90년대 말 일본과 흡사하지만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 채권중 국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상황과는 다름.
- 1999년말 기준 국채 발행액은 당해 연도 GDP의 100%에 달하고 있음. 발행금액의 대부분이 구조조정보다는 일반 경기부양목적으로 사용되었음.

III. 구축효과

- 통상 정부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일반 자금시장에서 기채할 경우 민간수요와 더불어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크게 오르고 민간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이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함.

-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시점에서 부실 금융기관들의 정리가 상당히 급박한 문제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음. 아울러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하리라는 우려 또한 널리 퍼져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불가피하게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었음. 당연히 구축효과에 대한 우려가 컸었을 것임. 예를 들어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대규모 공개시장에서의 공채발행이 감행된다면 98년 봄 이후 보이기 시작한 본격적인 이자율 하락 추세도 구축효과 때문에 급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음.
- 정부의 대규모 기채에 따른 구축효과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민간자금 수요를 제한하는 것임. 즉 이자율 상승이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자율 상승 등의 구축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임.
- 이 방안이 시의적절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당시 한국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이 중요한 외환위기 초래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었음. 따라서 대기업의 부채비율 감축의 명분으로 부채감축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각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 아울러 대기업 부채감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회사채 시장의 경우 가장 우량등급의 채권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이는 사채중에 제일 신용 위험도가 낮아 공채와 가장 흡사하여 대체성이 큰 채권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안정성 측면에서 공채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음.
- 대기업에 대한 부채감축노력의 집중은 그 동안 회사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대기업 회사채 비중을 낮춤으로 해서 비우량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음.

- 실제로 1998년 8월 이후 비우량등급 회사채 비중이 크게 늘었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월에 총회사채 발행액의 20% 정도였던 BBB- 이하의 회사채 비중이 12월에 들어 80%를 상회하고 있음.

<표 2> 보증유무별 및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¹⁾ 비중 추이

단위 : %

	1998. I	II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 증	87.5	82.5	63.4	17.2	14.9	1.7	8.6	8.0
무보증	12.5	17.5	36.6	82.8	85.1	98.3	91.4	92.0
(A등급 이상)	-	-	-	61.7	52.4	52.4	32.7	10.7
(BBB- 이상)	-	-	-	17.0	24.3	40.3	38.9	38.4
(BB+ 이하)	-	-	-	4.1	8.4	5.6	19.8	42.9

주 : 1) 1998년 8월 이후는 5대그룹 이외 기업 기준
 자료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1993. 3.

- 비우량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선을 마련하였다는 시각에서 당시 이런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하지만 비우량채권의 발행비중 확대는 그 이후 이들의 만기 도래시 상환, 차환이 어려워 거의 매년 회사채시장의 큰 문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아직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채 시장에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이 발행되도록 함으로써 만성적 문제의 씨를 심은 결과를 가져왔음. 단기 효과를 위해 장기 문제점을 무시한 소탐대실의 좋은 예임.

IV.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채권시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현재 늘어난 공공채권의 정비 및 다양한 성격의 회사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현실성이 없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행된 다양한 국채, 공공채권들을 통·폐합하여 채권물량의 집중화 및 표준화를 이루어 공공채권시장의 심화(market deepening)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유통시장의 확대를 기하여야 함. 이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의 근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는 채권발행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하여 회사채 신용위험의 정확한 판단과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비우량 기업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 따라서 비우량 기업의 경우 회사채 시장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만약 비우량채권을 소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발되면 전체 회사채 시장의 교란을 불러올 것임. 지금까지 매년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비우량 회사채의 차환문제가 좋은 예임.

- 아울러 그 획일성과 강제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부채비율 200% 준수 의무를 완화하여야 함. 특히 금융기업들의 기업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과거와 같은 높은 부채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기업의 과도한 부채의존 경향은 현금흐름 악화시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산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기업이 자체적 재무구조를 결정하여야 함.
- 이는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의 수익성이나 현금흐름을 고려한 부채과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지나치게 단선적인 부채비율 상한설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퇴색하고 부정적인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경제이슈>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전쟁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책

▣ 배상근 연구위원, 김창배 선임연구원

I. 조기수습의 경우 :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국지전

- 근거(특공대 투입 등을 포함) : 정부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저지른 테러이고,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개입 정도가 불분명
- 또한 빈 라덴의 체포가 주목적이고 아프가니스탄이 내륙 산악지형이므로, 대규모의 전면전보다는 특공대투입 등이 용이
- 국지전의 영향 :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
- 미정부가 금리인하나 조세감면확대 등의 정책을 수행할 경우, 미국 유동성부족이나 소비심리위축의 가능성이 크게 완화되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임.
- 사태 직후 OPEC의 증산용의 발표 후, 유가 안정

II. 장기전인 경우 : 일부 아랍국가들과 미국과의 장기전

- 근거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외에 테러관련 국가 공습 가능성
 -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에 대한 전 아랍권의 반발 가능성
- 장기전의 영향 : 전쟁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전쟁에 따른 영향은 대체로 우리 수출이 부진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는 악화되며 물가는 상승할 전망
 - 미국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교역규모가 감소하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므로, 전체 수출에 20% 정도를 차지하는 대미수출이 감소할 가능성
 - * 안전한 자산으로의 이동이나 미연준의 유동성공급 확대 등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예상
 - * 반도체 등 IT산업의 수출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실적이 좋은 편이었던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
 - * 또한, 전체 수출에 4.6% 정도 차지하는 중동지역 수출도 타격을 받고, 국외건설수주의 약 51%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건설수주도 감소하고 공사대금 지연 예상
 - 세계경제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

· 유가급등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 예상

*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직전인 90년 7월에 텍사스산 중질유(WTI)의 가격이 18.6 달러이였으나 10월에는 36달러로 약 17.4달러 상승

* 유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기업채산성 악화 예상

III. 전쟁 시나리오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시나리오 I

■ 유가가 약 5불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변화가 없는 경우,

- 금년 경제성장이 감소(-0.5%p)되고
- 경상수지는 악화(12.0억달러)되며
- 소비자물가는 상승(0.3%p)할 전망

<표 1> 시나리오 I 경제전망

단위 : %, %p, 억달러

	KERI 기본전망(A)			시나리오 I(B)			B-A
	3/4	4/4	연간	3/4	4/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1.1	3.1	2.7	0.8	1.5	2.2	-0.5
경상수지	27.7	20.5	117.2	23.1	13.1	105.2	-12.0
소비자물가	4.8	4.1	4.6	5.1	5.0	4.9	0.3

나. 시나리오 II

- 유가가 약 5불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 5% 절상될 경우,
 - 금년 경제성장이 감소(-0.8%p)되고
 - 경상수지는 악화(20.0억달러)되며
 - 소비자물가는 상승(0.2%p)할 전망

<표 2> 시나리오 II 경제전망

단위 : %, %p, 억달러

	KERI 기본전망(A)			시나리오 II(B)			B-A
	3/4	4/4	연간	3/4	4/4	연간	
2001년	3/4	4/4	연간	3/4	4/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1.1	3.1	2.7	0.6	1.0	1.9	-0.8
경상수지	27.7	20.5	117.2	20.1	8.1	97.2	-20.0
소비자물가	4.8	4.1	4.6	5.0	4.7	4.8	0.2

다. 시나리오 III

- 일부 아랍국가들과의 장기전에 의해 유가가 약 10불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 5% 절상될 경우,
 - 금년 경제성장이 감소(-1.0%p)되고
 - 경상수지는 악화(38.5억달러)되며
 - 소비자물가는 상승(0.6%p)할 전망

<표 3> 시나리오 III 경제전망

단위 : %, %p, 억달러

2001년	KERI 기본전망(A)			시나리오 III(B)			B-A
	3/4	4/4	연간	3/4	4/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1.1	3.1	2.7	0.4	0.4	1.7	-1.0
경상수지	27.7	20.5	117.2	12.4	-2.7	78.7	-38.5
소비자물가	4.8	4.1	4.6	5.3	5.6	5.2	0.6

IV. 국내경제 안정화 대책

■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

- 일시적인 심리적 동요에 따른 과도한 현금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필요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야 할 것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이 매우 클 경우, 환율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것

■ 수출시장다변화 추진과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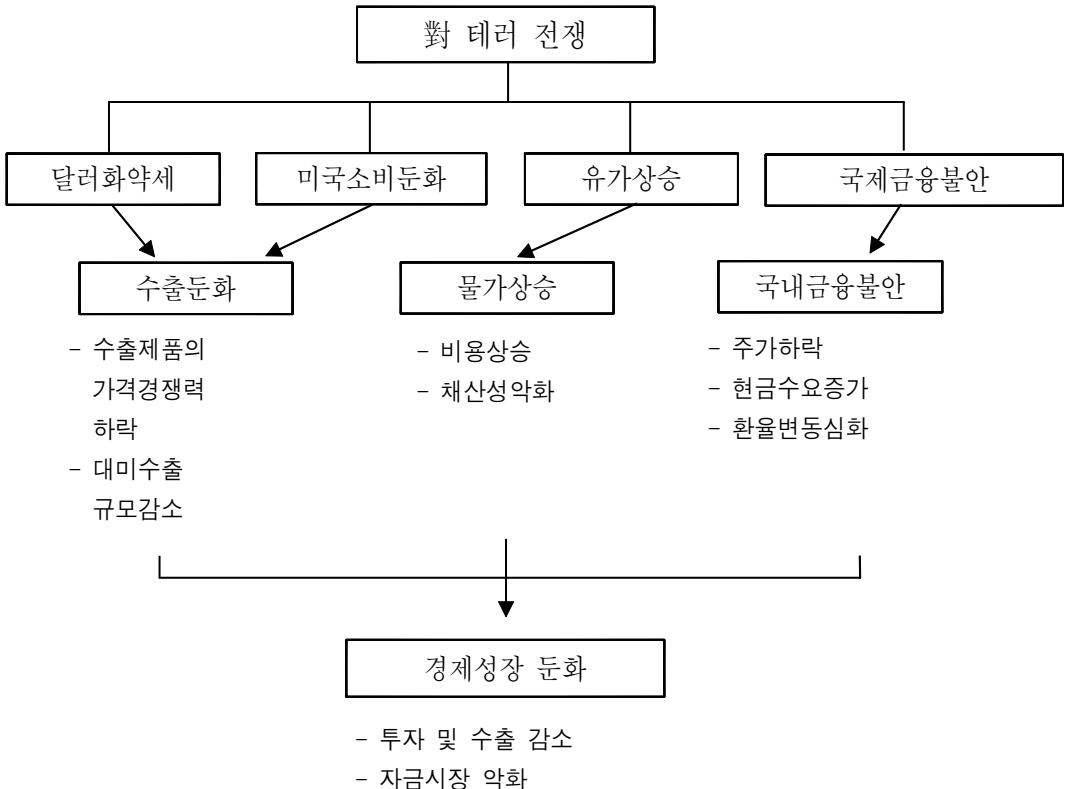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무역 활성화에 노력
-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단기적인 원유수급 불안 요인을 제거

■ 기업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국내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 * 내수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요망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철폐 및 제도개선 필요
- * 노사관계에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

<그림 1> 미국 테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4	금융감독원	<p>우회상장·등록*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p> <p>* 장외기업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낮은 장내기업의 주식을 매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장외기업을 합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등록시키는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개발 내용의 공시 강화(6.23부터 시행) •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비코스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동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공시토록 함. • 합병시 피합병법인(비상장·비코스닥법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무 보유제도 도입(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 개정 후 시행)
6/7	재정경제부	<p>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익채권 (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설립 •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 •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정보의 확대 및 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 개선 •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 관리체제 구축 • 매매거래 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 구축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29	금융감독위원회	<p>적기시정조치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차등적용 근거 마련
6/29	금융감독위원회	<p>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운용제한 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투기등급 채권에 대해 2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투신사의 펀드 운용정보 제공의 범위 제한 •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6/29	금융감독위원회	<p>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 이상)을 배제 • 성과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
7/2	정부	<p>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경기대응기조의 유지 •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개혁체제 정착 •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 •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 • 대외경제협력 증진 및 남북경협 내실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2	정부	<p>기업경영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계가 경제활력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중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72개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부문, 금융부문, 세제부문, 노동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조치계획을 발표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 마련 및 공인회계사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 등을 통한 회계제도의 개선 • 공시기준 강화 등 공시제도의 개선
7/5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를 5.0%에서 4.75%로 인하
7/11	재정경제부	<p>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시장 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충 • 회사채 차환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 발행 확대 유도 • 기술신보 보증을 통한 벤처 프라이머리 CBO 발행 확대 •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을 통한 대기업 설비자금 지원 촉진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촉진 • 외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7/27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p>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활성화 • 서민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27	금융감독원	<p>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제도 개선 •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 주요경영상황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 기타 주요경영상황 신고제도 개선 • 기업지배권 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7/29	금융감독원	<p>은행경영공시제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항목의 확충 • 준법감시인제도, 수익성중 순이자마진, 건전성중 순고정이하 여신 비율, 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침 등 공시항목 확충 • 공시기준을 명확화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 및 공시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 분기 공시항목과 반기 공시항목의 통일 • 자율적인 공시범위의 확대 • 결산 공시자료 비치기간의 단축기업자금조달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GNI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동기대비(%)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23	-11.7	-0.4	-21.2	-38.8	-10.1
1999년	10.9	21.0	8,551	11.0	1.3	3.7	36.3	-10.3
2000년	8.7	15.4	9,628	7.1	1.3	11.0	34.3	-4.1
1998년4/4	-5.9	-4.2	-	-9.2	-1.1	-18.3	-28.0	-13.9
1999년1/4	5.8	10.0	-	7.9	0.6	-4.6	11.6	-13.5
2/4	11.2	20.9	-	10.9	1.7	4.2	35.6	-8.8
3/4	13.0	26.2	-	12.4	1.1	6.7	47.0	-9.5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1/4	12.6	22.3	-	10.8	1.5	21.9	62.6	-6.8
2/4	9.7	16.9	-	8.9	1.1	13.2	41.6	-4.2
3/4	9.2	17.7	-	5.7	0.5	10.5	31.9	-3.5
4/4	4.6	6.5	-	3.2	1.8	1.6	8.1	-2.5
2001년1/4	3.7	4.4	-	0.9	-2.3	-3.7	-7.9	1.4
2/4	2.7	2.2	-	2.9	-1.2	-4.7	-10.8	0.9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 환 보유액 ¹⁾ (기말)	대미 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3.7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44.8	740.5	1,145.4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6.0	110.4	962.0	1,259.7
2000년 5월	146.4	28.1	132.8	40.5	18.6	15.7	868.2	1,133.8
6월	152.5	19.0	131.8	29.2	22.1	17.1	901.8	1,114.8
7월	144.6	23.0	136.7	39.8	12.7	10.4	903.5	1,116.2
8월	147.9	30.1	134.4	36.4	17.9	9.0	914.3	1,108.8
9월	151.3	26.5	132.9	31.3	23.5	17.2	925.3	1,115.0
10월	152.5	13.4	141.0	24.2	13.7	10.2	927.0	1,136.7
11월	149.9	5.6	141.6	20.7	11.0	10.6	933.4	1,195.3
12월	149.8	0.1	141.8	4.7	17.0	12.4	962.0	1,259.7
2001년 1월	126.5	4.0	124.3	-1.3	3.6	5.6	954.2	1,265.5
2월	133.3	5.1	126.9	5.5	10.1	7.0	953.3	1,245.7
3월	141.3	-2.1	129.5	-8.9	20.8	18.1	944.4	1,328.0
4월	121.3	-10.3	112.1	-16.0	13.1	5.9	934.8	1,324.7
5월	133.2	-9.0	115.4	-13.1	20.4	21.0	936.3	1,292.9
6월	130.2	-14.6	117.3	-11.0	18.1	10.5	942.6	1,300.7
7월	114.9	-20.5	110.9	-18.9	9.3	5.1	970.6	1,301.1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6.3	13.4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13.9	15.0	406.1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11.3	8.9	806.8
2000년	2.0(1.7)	2.3(3.2)	4.1	8.5	30.3	5.6	9.3	734.2
2000년 6월	2.6	2.2	3.6(3.8)	6.5	36.3	5.1	9.7	795.1
7월	2.9	2.9	3.6(3.7)	12.4	37.8	4.9	9.1	794.1
8월	2.5	2.7	3.7(4.1)	19.5	34.9	5.3	9.0	720.4
9월	2.5	3.9	3.6(4.0)	2.2	30.4	6.2	9.0	622.9
10월	1.8	2.8	3.4(3.9)	10.5	28.3	6.7	8.7	548.1
11월	1.3	2.6	3.6(4.1)	7.4	25.5	6.6	8.4	544.1
12월	1.7	3.2	4.1(4.0)	1.0	24.5	6.7	8.1	526.4
2001년 1월	2.3	4.2	4.6(4.1)	30.1	25.9	8.2	7.8	585.0
2월	2.4	4.2	5.0(4.2)	-4.4	20.4	8.4	6.8	593.6
3월	2.8	4.4	4.8(4.2)	9.1	18.1	7.9	7.2	543.9
4월	3.3	5.3	3.8(3.8)	5.9	16.3	7.7	7.9	530.3
5월	3.4	5.4	3.5(3.6)	3.6	16.0	8.2	7.7	600.7
6월	2.8	5.2	3.3(3.6)	6.8	13.5	8.8	7.2	602.9
7월	2.7	5.0	3.4(3.7)	-	12.5	-	7.0	554.1
8월	2.0	4.7	-	-	12.4	-	6.5	567.7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 증가율
3) 평균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주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축허가면적	
					전년동기대비(%)		전체	주거용		
1997년	4.7	79.2	3.2	-1.6	3.3	-6.4	5.4	-	-0.4	2.6
1998년	-6.5	68.0	-12.7	-21.0	-31.0	-37.7	-42.6	-	-55.0	-50.3
1999년	24.2	76.5	13.0	21.1	30.9	43.5	0.8	1.2	42.3	43.2
2000년	16.8	78.3	9.8	6.4	11.7	30.1	15.1	-3.1	11.8	-7.4
2000년 5월	20.3	79.6	15.8	19.8	12.0	33.3	18.8	1.1	-9.3	-30.4
6월	18.0	81.1	11.8	4.3	-10.0	30.4	31.9	-1.8	25.2	11.4
7월	19.5	80.6	8.4	1.1	17.6	30.4	12.7	-0.3	32.6	27.3
8월	24.8	81.5	9.2	2.4	4.7	39.2	43.0	-2.6	55.0	64.7
9월	15.2	77.7	6.4	-8.3	-1.1	19.2	-18.4	-6.1	16.0	-5.2
10월	11.7	76.0	5.3	-0.2	-4.9	22.2	-16.8	-0.7	-7.5	-19.4
11월	6.5	75.2	4.0	1.0	15.2	-1.1	-7.5	-2.9	-23.1	-42.9
12월	4.7	73.9	2.3	-6.2	41.7	-2.2	0.7	-0.1	-56.7	-64.8
2001년 1월	0.1	73.9	2.2	-10.8	-14.5	-9.2	-32.1	-0.6	2.7	-8.1
2월	8.8	74.9	1.6	-4.8	2.8	-4.8	-14.6	5.7	-4.8	-32.7
3월	6.4	75.2	3.6	-8.3	19.9	-5.0	-27.2	0.2	-29.5	-33.0
4월	5.6	74.7	4.0	-1.1	-11.8	-5.8	0.0	3.6	-17.6	-19.3
5월	2.3	74.8	4.8	3.3	3.2	-5.3	16.0	1.2	56.0	72.2
6월	-2.8	74.1	4.5	13.7	0.7	-2.8	-8.3	-5.4	51.0	53.6
7월	-5.9	71.0	2.5	7.1	-11.8	-10.3	11.9	-11.0	22.6	20.5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1년 9월 27일

1권1쇄 발행/2001년 9월 2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원